

# ‘대선불복’ 대비 마친 트럼프...4년전과 상황 다르다

### 선거개표개혁법·연방정부 동원 불가 등 중대 차이 지방정부 개표부터 제동·SNS 등 혼돈 가능성 상존

4년 전인 2020년 11월4일(현지시간) 이른 오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대동하고 백악관 연단에 섰다.

전날 대선 투표로 미국 전역에서 개표가 한창이었고 당선자 윤곽도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 트럼프는 사실상 대선 승리를 선언했고 극성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이날의 기습 승리선언은 대선불복의 본격적 시발점이 됐고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되던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로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충격적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후인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이미 각종 유세 등을 통해 자신이 압도적 승리를 향해 가고 있으며 민주당이 여러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대선에 패배할 경우 지지자들을 재차 대선불복의 한복판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작업에 한창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을 두고 4년 전과 유사성도 많지만 중대한 차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단 선거관리당국은 조기승리선언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수법에 적잖게 당황했던 4년 전과는 달리 당시를 반면교사 삼아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했다.

의회에서는 내년 1월6일 의회에서 이뤄지는 대선 결과 최종 확정을 쉽게 저지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개표개혁법’을 마련했다.

4년 전 대통령으로서 연방정부를 통솔할 권한을 대선불복에 동원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방정부에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공화당 소속 고위직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차이점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지지자들을 재차 대선불복의 한복판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지지자들의 열광에 답례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라고 NYT는 지적했다.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선거사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재생산했던 매체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했다. 보수매체 폭스뉴스의 경우 2020년 개표

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 거론했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 1조원대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기 승리선언으로 또다시 대선 직후 미국 사

회가 대대적 혼란에 빠져들 위험은 여전히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선거 참관인이나 선거 관리자에 포진한 보수 성향 인사가 지방정부 단위의 개표 결과 확정부터 문제 삼을 가능성

이 있다. 개표 이후 당선인 확정까지의 여러 절차 중 4년 전에는 막판을 주로 겨냥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초반부터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선거개표개혁법에도 허점이 있다. 주당국이 최종 개표결과를 의회로 보내야 하는 데드라인을 강화했는데 그 이전에 지방정부가 주당국으로 개표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저지되면 교착 상태에 빠진다.

폭스뉴스 등은 주춤하지만 ‘엑스’(X-옛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은 더욱 막기 힘들어졌다는 점도 문제다. X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여론전을 포함한 자체 대책을 세우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의 다나 레머스 법률수석은 성명에서 “트럼프가 여전히 진행 중인 선거의 결과에 이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며 “그는 2020년에 실패했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NASA, 우주 240억km 밖 ‘보이저 1호’ 동면 깨워 교신 성공

#### 한쪽서 보낸 신호 도착 23시간 소요...주요받는 데 46시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지구에서 240억km 떨어진 태양계 밖을 비행 중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의 교신 재개에 성공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NASA가 최근 스스로 전원을 끄고 동면 상태에 들어간 보이저 1호와의 연락 방법을 찾아냈다. 인류가 만든 비행체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보이저 1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8일이었다.

47년 전에 발사된 후 줄곧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 손상 위험이 있는 보이저 1호의 부품 보호를 위해 NASA가 내부 히터를 작동하라는 명령을 발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구에서 보낸 명령을 받은 보이저 1호가 갑작스럽게 비상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후 NASA는 보이저 1호가 우주에

서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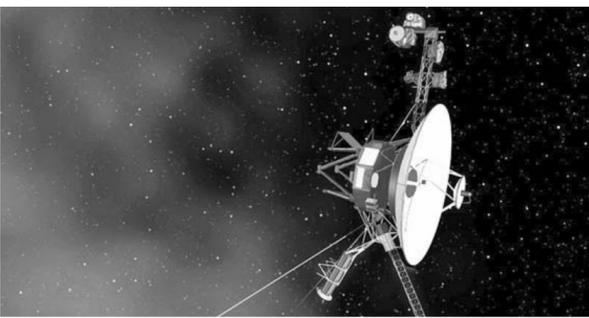
NASA는 보이저 1호가 비상 모드에 들어가면서 전원 절약을 위해 교신 시스템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지구와 연락이 끊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 해결에 나선 NASA의 과학자들은 보이저 1호에 당초 2개의 교신 시스템이 장착된 사실에 주목했다.

지금껏 NASA는 고주파수로 정밀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X밴드를 통해 보이저 1호와 교신했다.

보이저 1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S밴드 송신기도 장착됐지만, 신호가 약하다는 이유로 지난 1981년 이후 4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

NASA 과학자들은 S밴드를 통해 보이저 1호와 교신을 시도했고, 결국 신호를 찾는데 성공했다.



우주를 탐사 중인 보이저 1호 상상도.

보이저 1호가 전원 절약을 위해 자체적으로 X밴드 송신기의 기능을 중단시킨 후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이 적은 S밴드 송신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NASA 과학자들의 생각이다.

NASA는 S밴드 송신기를 통해 보이저 1호와 교신하면서 X밴드 송신기를 재작동시킬 방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S밴드 송신기는 신호가 약하기 때문

에 장기간 보이저 1호와 교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NASA가 보이저 1호와 교신을 주고받는 데에는 46시간이 걸린다. 한쪽에서 보낸 신호가 다른 쪽에 도착하는 데만 23시간이 소요된다.

보이저 1호는 쌍둥이 탐사선 보이저 2호와 함께 1977년에 보름 간격으로 발사됐다. /연합뉴스

## 푸틴 측근 “美, 우크라이나 기름 부으면 3차대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기름을 끼얹으면 제3차 세계대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러시아 매체 RT 인터뷰에서 “차기 미국 지도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계속 기름을 끼얹는다면 이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나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정말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라며 “5일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러시아 깊은 곳을 타격할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핵무기 사용 조건을 다루는 교리(독트린) 변경을 추진하며 서방에 핵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미국

당국자들이 ‘러시아가 특정 선을 넘어 핵무기로 자국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들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고(故)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보여줬던 선견지명과 예리함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동부야기니 군정 수장 ‘셀프 승진’

서아프리카 기니의 군정 수장 마마디 둠부야(43) 중장이 자신을 육군 대장으로 승진시켰다고 AFP 통신이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오후 발표된 법령에 따르면 둠부야는 국가 최고 훈장인 대십자훈장 ‘올라티에’도 받았다.

기니에서는 무리한 개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쫓겨나고 당시 대령이던 둠부야가 이끄는 군정이 들어섰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무설탕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